



《맑은 타미르 강》(전2권)  
차드라발 로도이담바 지음 | 유원수 옮김  
1권 452쪽, 2권 515쪽 | 각권 값 13,000원

## 몽골의 소설, 차드라발 로도이담바의 《맑은 타미르 강》 유목민의 숙명과 생의 본질

글\_이주연 기자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도, 어떠한 슬픔과 괴로움도

인공의 운명이 몽골의 역사적 사건들(몽골은 14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식민지배에 시달렸고, 1924년 인민혁명에 성공했지만 크고 작은 혁명 전복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과 궤를 같이 하면서 흘러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생의 본질이 유목민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교직되면서 설득력을 얻는다. 소설이라는 문학적 형질의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을 투박하게 살리는 작가의 성실성에 읽는 마음이 젖어드는 것이다.

기뻐하는 마음과 행복에 대한 그리움을 말라붙게 할 수는 없다”(23쪽).

그래서 삶은 계속되는 것일 테지. 부재와 결핍이 만든 삶의 결락에도, 그 낙차에 어안이 병병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결락과 낙차를 쓱쓱 지우고 다시 선다. 다시 걷는다. 다시 웃는다.

유목민의 숙명은 방랑이다. 그들은 사막의 모래 먼지 속에서 삶을 배우고, 달리는 말 위에서 사랑을 속삭인다. 그들의 길들 여지지 않는 정신은 오직 자연 앞에서만 진정으로 경외의 빛을 띤다.

이 소설의 제목이면서 배경이기도한 타미르 강은 항가이 산맥에서 발원하여 몽골 중서부 아르항가이 지방을 흘러 오르홍강에 합류하는 약 280Km의 긴 강이다. 몽골 사람들은 이 강을 중심으로 ‘후레’로 불리는 마을을 형성하고 가축의 젖을 발효시킨 ‘타락’을 마시며 살아간다.

1, 2권으로 되어있으니 합쳐서 1,000쪽에 가까운 이 몽골 소설은 유럽 소설의 신선한 실험성이나 일본 소설의 세련된 가독성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쉽지 않은 작품이다.

나 또한 주인공 형제의 ‘에르덴’과 ‘투무르’라는 이름을 소설에 등장하는 비슷한 다른 이름들(에르한, 투그질, 이트켈트 등 셀 수 없이 많다)과 구분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몽골판 《전쟁과 평화》’라는 카피가 달리 생긴 것이 아니라 이 헛갈리는 이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읽기를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이 소설이다. 주인공들의 고단한 ‘방랑’은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끈다. 두 주

1954년부터 1967년까지 13년에 걸쳐 쓰인 이 소설은 작가 차드라발 로도이담바의 대표작이면서 몽골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이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몽골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라고, 이 작품을 원작으로 만든 동명의 영화는 특별한 날 반드시 텔레비전에 방영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최인훈의 《광장》같은 작품인 셈이다.

로도이담바는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나 인민혁명이 성공한 조국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행복한 작가다. 사춘기 시절의 첫사랑이었던 돌고르수렝(후에 몽골의 인민 배우로 불렸다)과의 결혼에 성공했고, 모스크바에서의 유학 생활 후 귀국하여 문화부 차관까지 지냈다. 작가로서, 가장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모두 성공한 흔치 않은 경우다.

주인공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살아만 있으면 황금 잔으로 물을 마실 날이 온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소설은 두 형제가 모두 ‘황금 잔’을 쥐는 결말을 만들지 않는다. 동생은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비참하게 죽고, 형은 혁명 반대세력의 폭동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다.

대신 작가는 소설의 희망을 다음 세대에게 열어놓는다. 아직 ‘죽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는 죽은 아버지가 심어 놓은 들오얏 나무 아래서 마냥 즐겁다. 이 아이가 크면 사나운 총이말을 휘어잡고 사막을 달리며 계절에 따라 바뀌는 타미르 강 앞에서 웃음을, 눈물을 짓겠지. 제 아버가 그러했고, 몽골인의 삶이 그러하듯이. **한지**